

TOUS les JOURS

Master Franchise Agreement  
Sony

뚜레쥬르  
할랄시장  
정조준  
니



metro®

Life

현대차그룹  
싼타페·EV3  
'세계 여성 올해의 차'  
L4



# 부드럽고 폭신한 맛에 식감까지 세계가 빠진 '기네스 롤' 답네

##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 파리바게뜨 '실키롤케익'

1988년, 국내 첫 프랑스퐁 베이커리 선봬  
매장서 직접 굽는 '베이코프'로 신선함↑

파리바게뜨 탄생과 함께 '실키롤케익' 출시  
선물용으로 탁월... 30년 넘게 스테디셀러로

세계 최다 판매 롤케익으로 기네스 신기록  
지나해, 등재 4주년 맞아 '롤케익' 한정판도

국내 베이커리 문화는 파리바게뜨의 탄생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8년 국내에 처음 프랑스퐁 베이커리 문화를 선보인 파리바게뜨는 30년 이상 베이커리 업계를 선도해오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하게 양산빵을 중심으로 진열, 판매하는 매장이 주를 이뤘던 반면, 1988년 6월 파리바게뜨 광화문점이 문을 열면서 윈도우 베이커리 문화를 고객에게 선보이기 시작했다.

매장에서 직접 빵을 굽는 베이코프(Bake-off) 방식을 도입해 갖 구운 신선한 빵을 만날 수 있도록 한 것도 파리바게뜨가 국내 최초다.

이후 가맹점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점포 수와 인지도를 늘린 파리바게뜨는 크루아상, 페이스트리, 바게



지나해 한정판매한 1988 실키롤케익.

트 등 프랑스퐁 제품을 중심으로 하되,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하며 모든 세대의 입맛에 맞는 제품들을 선보였다.

그 중에서도 1988년 5월 11일 출시한 파리바게뜨 '실키롤케익'은 30년 넘게 스테디셀러에 자리매김했다.

전용 밀가루에 신선한 달걀과 버터를 넣고, 부드럽고 폭신한 스펀지케이크에 버터크림과 건포도가 더해진 식감이 특징이다. 선물하기도 좋고 함께 나눠 먹기도 편해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선물류 카테고리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롤케익으로 기네스 월드레코드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기도 했다. 파리바게뜨는 실키롤케익의 우수성과 판매 성과를 전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세계 신기록 등재를 추진했고, 지난 2020년 일정 기간 최다 판매된 제품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기네스 세계기록 인증을 받았다.

2015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5년간 한국, 중국, 미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 5개국에서 1249만8487개가 팔렸다. 약 12초마다 1개씩 팔려나간 셈이다. 판매된 제품을 길로 환산하면 약 3000km로 프랑스 에펠탑(300m) 높이의 9300배, 에베레스트산(8848m) 높이의 339배다.

기네스 인증을 받은 후로는 1일 평균 판매량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제 2의 전성기를 맞기도 했다. 젊은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며 '기네스롤'이라고 불리는 등 특별한 선물로 재조명됐다.

지나해 파리바게뜨는 실키롤케익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롤케익'으로 등재된 지 4주년이 된 것을 기념해 한정판 제품 '1988 실키롤케익'을 선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국민 롤케익'로 오랜 시간 사랑 받은 케이크라는 의미를 담아 기존 실키롤케익 대비 두 배의 길이인 47cm 크기로 제작해 용량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맛과 재미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SPC그룹은 올해 파리바게뜨의 글로벌 사업 조직을 개편하는 등 해외 사업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글로벌 조직에 아시아태평양·중동·아프리카(AMEA) 본부를 신설했으며, 이는 올해 초 본격 가동 예정인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 제빵 공장 완공을 앞두고 실시한 것이다. 2조 달러 규모의 세계 할랄(Halal) 푸드 시장 공략을 위해 현지 시장 경험이 많은 경영자들이 전진 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SPC그룹은 미국에서도 텍사스주 벌리슨 시에 현지



파리바게뜨는 실키롤케익의 우수성과 판매 성과를 전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세계 신기록 등재를 추진했고, 지난 2020년 일정 기간 최다 판매된 제품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기네스 세계기록 인증을 받았다. /SPC

생산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메리카 본부는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향후 진출 예정인 중남미 지역까지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SPC그룹 관계자는 "해외 각 지역 본부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해 글로벌 사업을 현지화 하고, 국내 본사가 보다 효과적으로 해외 법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는 현재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총 14개국에 진출했으며, 630여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2030년까지 1만2000개 매장 달성이 목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메트로 한줄뉴스



▲바이든, LA 산불에 '마지막 순방' 취소...중대 재난 지역 선포 /사진 뉴시스  
▲트럼프 우크라 특사 "트럼프, 우크라전쟁 100일 내 종식 원해"

▲WEF "시로 인해 전 세계 기업 41% 인력 감축 계획"  
▲한국 '여권 파워' 세계 3위, 지난해보다 한 단계 ↓...1위 싱가포르

▲中 관영 매체 "韓 여당, 중국인 개입설 일방적 주장...책임 전가"  
▲'프랑스군 철수' 차드 대통령궁에서 총격 사건...19명 사망